

# 문학 속에 이식된 과학적 진리와 상상력

구체적인 과학지식 바탕으로 작품화... 과학시대의 리얼리티 살아 있어

흔히 '과학소설'이라는 말 앞에는 늘 '공상'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따라다닌다. 그러나 과학혁명의 시대인 20세기를 전후해 발표된 소설들 중에는 '공상'이라는 수식어를 능히 거부할 만큼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과학적 현상을 소설에 이식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다.

《80일간의 세계일주》《해저 2만리》등을 발표하며 19세기에 활약한 프랑스의 과학소설가 쥘 베르네가 1862년에 집필한 《20세기 파리》(한림원)는 20세기 후반을 사는 독자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당시 출판업자가 출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1세기 이상 간혀 있었던 이 원고는 연소엔진 자동차와 팩스, 처형용 전기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동시에 '인간의 달착륙'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

## 공상차원 벗어난 과학소설

이같은 구체적인 과학적 진리와 법칙들이 소설 속에 이식되는 경향은 선진국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20세기 후반 국내 소설에도 뚜렷한 하나의 조류로 자리 잡고 있다. 주로 자연과학 전공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이 책들은 SF로 대변되는 과거의 공상적인 차원을 벗어나 구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한 스토리구성과 독특한 시사성 등으로 점차 독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책이 제 5회 하이텔 통신문학상을 받은 김은영씨의 《사과 전쟁》(세명문화사)이다. 이 책은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최고두뇌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들과 포항공대생들간의 해커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흡사 이런 일련의 사태를 미리 예견한듯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은 저자가 과학기술 고등학교와 KAIST에 다녔던 경험을 근간으로 쓴 작품이다.

미국의 유명 컴퓨터회사인 '애플'사의 이름을 빌려 사과전쟁으로 명명된 '정보화목장의 결투'에서 해커들은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로 비유된다.

전기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해커가 침입한다. 라이벌인 포항공대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최고의 두

구체적인 과학적 인식과 법칙들이 이식된 소설들이 국내 문학에 하나의 조류를 형성해 가고 있다. 최근의 과학소설들은 SF적인 '공상'이 아닌 구체적인 '리얼리티'를 지니고 과학혁명시대의 삶과 인간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학적 기능을 지닌다.

뇌들은 어린 시절부터 라이벌이었을, 지금은 연적(戀敵)이자 자존심의 적수인 상대와 인터넷을 통해 치열한 결투를 벌인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정보화시대의 프로메테우스들은 결국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거나 쓸쓸한 혁명가로 남는다.

이 과학소설의 가치는 현대에 걸맞은 '소재와 배경의 확장'에 있다. 그것이 힘을 지니는 것은 지금이 다름아닌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영향력에 의해 지탱되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언제까지나 '물레방아'나 '성황당'을 소설에 쓰고 있을 것인가 하는 시대적인 갑갑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에는 DTP, 머드게임, 전기자동차 등의 과학적 배경과 함께 인간의 애증과 갈등이 무리없이 공존한다.

연금술이 서양의 과학과 철학을 뒤흔들던 시절 동양을 뒤흔든 것은 '영원히 사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화두는 현대과학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간된 소설 《인과율》(무당)을 보면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원자핵 물리학을 전공한 저자는 소설 속에서 영원히 사는 법이 그냥 공상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설명한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쌍둥이 학설'과 현대 분자생물학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과학적 이론을 통해 인류의 오랜 염원인 '영생불사'가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사한 채 발견된 노인파 소년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한 기자의 추적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이 소설은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을 오가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두 생명체를 하나는 빛에 근접한 속도로 우주여행을 시키고 하나는 지구에 머물게 할 경우, 전자는 늙지 않는 반면 후자는 늙는다”는 쌍둥이 역설(Twin Paradox) 혹은 시계의 역설(Clock Paradox)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가설에 근거해 씌어진 이 소설은 인과율(因果律),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를 소설로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 과학시대에 문학의 기능 강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도현씨의 장편 《로그인》(창작과비평)은 인공위성 제작을 위해 구성된 우주공학 실험실을 무대로 신세대 과학자들의 삶과 고뇌를 그린다. 편협한 자연과학과 인문주의의 배치구도를 허물어뜨린 이 소설 주인공들은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도대체 세상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고민하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밤새워 술을 마신다.

과학적 언어들이 문학이나 철학의 용어처럼 녹아 있어 문학성에서 일반소설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이 책은 '캠퍼스소설'의 한 전형이면서도 과학소설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꿈이 대의의존적인 정부의 과학정책에 의해 훼손당하는 과정을 묘사하다 결국 현실참여로 결론을 내리는 구성도 형이상학 소설의 일반론보다는 과학적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2013년 통일한국의 사이버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소설 《디지털도시》(마이크로그래픽)는 허

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이버공간을 주요 무대로 펼쳐지는 '미래과학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뉴미디어의 도래에 의한 테크놀로지 혁명은 인간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충격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래픽과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학생, 멀티미디어를 통한 노아의 방주 여행, 애플의 역사를 담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 <트로이 애플>, 사이버 섹스 혁명의 가공할 위력 등 주인공의 일상과 함께 묘사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타당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직조되어 있다.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미디어저술가인 저자 박토시(본명 박진호)씨는 “싫든 좋든 인간생활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소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간과 미디어에 관한 올바른 해답을 찾는 작업으로서의 문학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사진의 발명이 그림에서 '구상(具象)'을 사라지게 했고, 대량생산 체계가 수많은 수공예를 역사의 장으로 돌려놓았다. 과학은 이성의 영역이고 문학은 감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이제 철지난 추억인 것이다.

이제 국내문학은 과학적 기기들과 상상력 없이는 하루도 못사는 우리의 현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소설들에서 허무맹랑한 공상보다는 리얼리티가 더 짙게 느껴지는 것도 지금이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 허연 기자